

시편 91

결에

빅 콜먼

소개

우리는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물리적 세계는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냄새를 맡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삶에 육신의 세계만큼이나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관문이며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입니다.

최근에 저는 동이 트기 훨씬 전인 어느 이른 아침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 주님께서는 제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원수가 내게서 "도둑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 주셨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문을 열어 두었"고 원수는 그것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어나서 성경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곧 시편 91편을 펼쳤다. 저는 이 시편을 큰 소리로 읽고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 나는 컴퓨터로 돌아가서 이 시편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공부하면서, 저는 이 시편을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제 육신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몇 개의 짧은 구절로 많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교훈을 통해 저는 이 시편에 대해 약간의 빛을 비추어 신자들이 이 시편이 제시하는 진리와 위안을 보고, 그 능력을 이해하고, 삶의 시련으로 인해 "무릎을 꿇을 때 그것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과 소통하시는 주된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당신의 백성과 소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었고 또 사용하셨는데, 예를 들면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한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 천사의 나타나심, 환상과 꿈,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 등이 그것이다. 내 삶에서 하나님은 주로 성령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규칙적인 패턴이 없이, 나는 밤에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다음 며칠 동안, 그 환상의 "의미"를 확증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꿈의 해석자가 아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하거나 기대하지 않는다. 때때로, 그분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현 이후 제 삶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 시현이 제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을 확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이상, 나는 "폭풍"이 닥치기 전에 대비할 수 있었다.

나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당신에게 말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의미를 찾기 위해 끝없는 날을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때때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이런 방식에 대해 분명히 하고 싶다. 나는 당신이 가졌던 꿈을 정말로 당신이 저녁 식사로 먹은 "나쁜 피자" 때문에 일어났다고 해석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당신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을 위한 그분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히 특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주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가서 꿈을 해석하는 것에 관한 최신 책을 사지 마세요. ☺

이 과에 사용된 성구

욥기 1

욥기 2

시편 91

시편 121

요한복음 14:26 – 27

빌립보서 4:6 – 8

히브리서 11:35 – 38

야고보서 1:16 – 18

세상에는 정말로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욥기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흥미로운 예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욥기 1:1-5을 읽어보세요. 이 섹션에서는 Job에 대한 몇 가지 배경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KJV)에 따르면 그가 "완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했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 단어들에 대한 히브리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욥에 대해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완벽함 (*tam*) – 완전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도덕적으로 결백한, 성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올바름 (*yashar*) – 의롭고, 기쁘고, 옳다
- 두려움 (*yare'*) – 경건한, 존경 또는 존경을 나타내다
- *Eschewed* (*cuwr*) – 옆으로 돌아서다, 떠나다, 피하다

우리는 육이 온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악을 피한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은 성실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마침 그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6-12절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육이 알지 못하는 어떤 대화가 있다는 것을 본다. 이 대화는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3-22절을 읽으면서, 영적인 세계가 육의 육체적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육기 2:1-6과 7-8절에서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성구들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적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육이 겪은 시련은 그의 "죄 많은" 행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육이 악을 "피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고 말합니다. 육의 생애에서 시련은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본질적으로, 사탄은 육이 충절을 지키는 사람이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느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아니오"라고 말씀하셨고 사탄은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과 원수 사이의 싸움이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누가 알았고, 누가 몰랐는지 - 하나님이나 사탄. 그것은 물질계에 영향을 미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놀랍고 영원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틀렸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이 의심받을 수 있었다. 이 전투의 결과에 많은 것이 달려 있었고, 육은 그 중간에 있었다.

그래서 물질계에 영향을 미치는 영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어떤 "도구"를 제공하시는가? 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계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육신적인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편 91편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련으로 "무릎을 끓게" 될 때, 우리는 이 시편을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분의 보호를 간구하고 그분이 이미 공급하신 것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파고 들 것입니다.

요점: 우리의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요점: 하나님과의 대화(기도)는 우리의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 거함

시편 91:1을 읽어 보세요. KJV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단어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수업에서 이 버전을 사용할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유용할 것입니다.

- 거하다 (yashab) – 앉다, 앉다, 머물다, 세워지다, 설정되다
- 비밀(세테르) – 덮개, 피난처, 은신처
- Abide (luwn) – 머물다, 멈추다, 밤을 보내다, 쉬게 하거나 머물게 하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난처 아래에 머물거나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 멈추어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덮개와 피난처에 남아 앉는 사람들이 그분의 보호 아래에서 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야샤브)"이 가장 좋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기 예보에서 해당 지역에 심한 뇌우가 예보되면 폭풍 속에서 "엄폐물을 찾으러 도망"하는 것보다 폭풍이 닥치기 전에 이미 대피소에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 폭풍이 닥칠 때 준비할 수 있도록 매일 강화되는 그분과 이미 친밀한 개인적 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점: 문제가 닥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야샤브)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가 시련을 만난 후 하나님께 달려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 어떻게 하면 환난이 닥치기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야샤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계기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나요?

1절은 또한 그분의 보호에 대한 확신을 제공합니다. 그의 피난처는 너무나 안전해서 당신이 그곳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은 잠시 멈춰서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쉬는 동안, 당신은 2절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요새, 피난처,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고 순종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신뢰하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2절을 생각할 때면, 집에서 쉬면서 스타트렉™ 재방송을 보거나(저는 스타트렉™ 팬입니다), 소파에서 팝콘을 먹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심한 폭풍이 우리 집 바로 위에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걱정하는 것은 엔터프라이즈호의 선원들이 행성으로 내려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이다. 바람이나 지붕이 새는 것, 우박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 비에 흠뻑 젖는 것에 대한 걱정은 내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다. 왜? 왜냐하면 나는 내 피난처의 안전을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엔터프라이즈호 승무원의 임무와 같은 다른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우리의 마음이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일과 같은 우리의 문제 이외의 다른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뢰"라는 단어는 "chacah"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속마음을 털어놓다, 희망을 갖다, 피난처를 찾다라는 뜻입니다.

요점: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문제가 아닌 다른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쉴 수 없는 것들을 신뢰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 우리 자신 (나 스스로 할 수 있음)
- 우리의 이해 (나는 상식을 사용하고 알아낼 수 있습니다)
- 우리의 은행 계좌 (나는 충분한 돈을 얻었다. 나는 그것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 (그들은 이전에 나를 도와줬고, 지금은 나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 다른 사람들을 위한 조언 (그들은 "내가 너라면 나는..."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아직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았습니다)
- 논리 또는 이유
- 우리의 상황에 대한 우리의 "통제"(통제는 실제로 환상이다; 우리는 우리의 나쁜 습관을 통제할 수 없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은 더더욱 통제할 수 없다)
- 세상 철학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한다)
- 우리를 위해 나설 다른 사람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뢰하는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곤경에 처했을 때 어느 쪽을 믿었습니까? 왜? 왜 실패했는가? 어떻게

하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돋기 위해 위의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실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된 도움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올무로부터의 안전

3절을 읽어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특히 KJV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올무"는 문자 그대로 새의 덫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당신에 대한 덫이나 음모나 재앙의 계략을 가리킵니다. "파울러"는 덫이나 미끼를 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절은 아주 확실하게(확실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낚아채시고,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해치려는 자들의 계략과 음모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치명적이거나 위험한(시끄러운) 질병으로부터 당신을 구할 것입니다.

4절에는 그분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림이 나옵니다. 암컷 독수리가 깃털로 새끼를 덮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병아리는 안전하고 어미 곁에 있습니다. 병아리 "yashab"과 "luwn"은 어미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구절의 후반부에는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나의 첫 반응은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방패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방패'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진리"라는 단어는 다음을 의미하는 "emeth"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 굳건함, 신실함, 진실함
- 확실성, 신뢰성
- 안정성, 연속성
- 신실함, 신뢰성

- 진실
- 말로 표현
- 증언과 심판에 관하여
- 하나님의 교훈
- 윤리적 또는 종교적 지식의 집합체로서의 진리
- 참된 교리

그 목록을 살펴보면서, 나는 "진리"에 대한 모든 정의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성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지합니다. 그 신실하심은 그분의 신뢰성과 안정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신뢰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된 말씀은 참되십니다. 그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신성한 판단과 지시에 의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지식을 갖고 계시며, 따라서 그분의 교리는 참됩니다.

"방패"라는 단어는 큰 방패를 의미하고 "버클러"는 팔뚝에 착용하는 작은 방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4절은 하나님의 진리(에메트)가 크든 작든 어떤 종류의 방패가 필요하든 상관없이 당신을 덮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합니다.

요점: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의문을 품었던 것이 언제였는가? 왜? 무엇이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었는가? 결국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무엇이

당신을 그분을 신뢰하게 만들었는가? 미래에 그분을 신뢰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 나는 언제 두려울 수 있을까?

5절과 6절을 읽어 보세요. 시간을 언급하는 문구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어둠 속에서 나 낮에 나(6절)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할까요? 이 구절에 따르면, 결코; 낮이나 밤이나 아무 때나 상관 없습니다. 왜 – 그분의 "에메스"가 우리의 보호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서 위의 정의를 검토하십시오).

대피소에 대한 비유로 돌아가서, 대피소는 밤낮으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 대피소의 지붕은 밤에 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붕은 무결성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분은 결코 잠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뢰할 수 있으십니다. 그분의 "진리"(에메스)가 우리의 방패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21편을 읽어 보세요. 이 시편은 짧막한 시편이지만, 하나님의 보호에 관한 요점을 강조해 줍니다.

사방의 트러블

시편 91편의 7절과 8절을 읽어 보세요. 7절은 우리나라 경제의 침체 때문에 이 시기에 특별히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에게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직장, 집, 마음의 평화를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재앙이 우리 주변에 도처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보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일이 일어나도" 내면의 평화를 잃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피난처는 우리의 육체적 안녕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안녕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침착하고 평안한 태도로 행동할 것입니다. 그들은 "왜 걱정하거나 화가 나지 않나요?"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은 우리가 평화의 왕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26-27과 빌립보서 4:6-8을 읽어보세요.

혹독한 시련을 겪었지만 "제정신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을 알고 있는가?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들은 왜 그토록 침착했을까? 여러분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행동했겠는가? 왜?

8절은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행한 일들 때문에 나에게 약간의 위로를 주었다. 그것은 악한 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임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즉시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9절과 10절은 보호라는 주제를 계속합니다. 9절에서 "피난처"는 비, 폭풍 또는 위험으로부터 피난처 또는 피난처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거주"는 주거지, 당신이 머무는 어떤 장소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거하시면 어떤 악도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나는 과거에 나쁜 일이 일어났다. 예수가 자신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라도 했단 말인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의 경우,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으로 "나쁜" 일들이 그분에게 일어났습니다. 복음서 곳곳에는 "성경이 이루어지고"(마 2:15, 2:17, 2:23, 13:14, 27:9, 막 14:49, 누가복음 4:21, 18:31)와 같은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가 지상에서 살았던 사건들은 그분의 죽음을 포함하여 그분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궁극적인 계획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을 높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입니다.

- 우리의 죄 많은 행위
- 지혜, 건전한 판단 또는 성경적 원칙에 대한 불순종
-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우리의 방법으로 일하려는 우리의 의도
- 다른 사람의 죄 많은 행위
- 우리에 대한 사탄의 계략
- 현재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

그러나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신 결과로 일어날 수 있다.

우리의 증언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시련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평안"을 유지할 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은 그것을 인정하고 승인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브리서 11:35-38을 읽어보세요. 앞 구절들은 신앙으로 큰 장애물을 극복한 신앙의 "영웅들"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구절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은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은 "세상이 그들에게 합당하지 못하더라"고 선언합니다.

하느님의 보호를 받는 또 다른 요소

시편 91:11-12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의 또 다른 측면인 천사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도록" (보호하고, 보존하고, 구원하고, 깨어 있으도록) "명령"(명령하고, 임명하고, 명령하십니다)하실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그들이 "너를 그들의 손에 받들리라"고 말합니다. "너를 업으라"는 말은 들어 올리고, 업고, 지지하고, 지지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여러분을 들어 올리고, 운반하고, 지지하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13절은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승리"의 유형과 정도에 대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adder"(KJV)는 코브라 또는 독사와 같은 독사의 일종입니다. "용"은 용, 공룡, 바다 괴물 또는 뱀일 수 있습니다. "밟고" "발을 밟는다"는 것은 그러한 해로운 것들을 온전히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어떤 능력도 아닌 하나님께 머무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승리를 거둘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야고보서 1:16-18을 읽어보세요. 평화의 계절에 접어들고 모든 것이 대체로 우리 뜻대로 될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주시는 좋은 것들로 옮겨갑니다.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의 강도가 감소하는 만큼 "좋은 삶"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힘과 영향력이 있으며, 우리의 승리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이보다 더 진실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좋은 삶"을 조심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작업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실제로 그 일을 한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공로를 인정할 때 어떻게 느끼신다고 생각하는가? 최근에 이 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시편 91편의 마지막 세 구절에서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4절의 첫 번째 구절에 주목하십시오. "너희의 사랑을 그분께 두[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사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chashaq"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랑하다, 애착을 갖다, 갈망하다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직장 때문에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 동안 아내와 떨어져 있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3일 이상 지속된다면, 나는 정말로 그녀를 그리워하기 시작한다. 전화로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있고 싶다. 결혼한 지 20년째에 접어든 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애착을 갖게 되었다.

당신은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그분을 갈망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갈망"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 당신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지 않는다면, 왜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무엇이 당신을 방해했습니까? 지금 당신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노, 실망, 혼란, 답 없는 질문?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키울 수 있습니까?

또한 14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차샤크"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애착을 가지기 때문에 받는 유익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구원"할 것이고 (당신을 안전하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사로잡히기에는 너무 높게 세우는 것,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그분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당신은 경험으로 알고, 인정하고, 인정합니다).

15절은 우리가 그분을 "부르면" (큰 소리로 부르짖고, 도움을 청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나오는 "구출하다"라는 단어는 14절과 다른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래했다. 15절에 나오는 "Deliver"는 "chalets"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 제거하다, 구출하다
- 장착하다, 무장하다
- 활력을 불어넣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때, 우리는 영광을 얻고, 영광을 얻고,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하나님은 장수로 우리를 "만족"시키실 것입니다. "만족스럽다"는 것은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충족시키고, 넘치고, 만족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이 또한 영생에 대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다음과 같은 의미의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 구원
- 구원
- 복지·번영
- 구원
- 구원 (하나님에 의한)
- 승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히브리어 단어가 "여호수아"가 파생된 단어와 같은 단어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의 히브리어 번역입니다.

요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모든 보호"를 경험하는 데에는 몇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그들은:

-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yashab) – 앉다, 앉다, 머물다, 세워지다, 세우다, 앉다, 앉다,
-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luwn) – 머물다, 멈추다, 밤을 보내다, 쉬게 하거나 머물게 하다
-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chacah) – 털어놓다, 희망하다, 피난처를 찾다.
-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처소"로 삼아야 합니다. (ma 'own) – 거처, 피난처
-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그분께 두어야 합니다. (chashaq) – 사랑하다, 애착을 갖다, 갈망하다

이제 당신은 "빅, 이건 긴 목록이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위의 모든 것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관계가 성장함에 따라, 위의 모든 것은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폭풍이 오기 전에 당신의 "피난처"를 건설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시편 91편). 여러분은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바위처럼 견고한" 보호를 통해 힘과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